



3년 만에 떠오른 세월호 세월호가 침몰 1073일째에서야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23일 오전 중국 인양업체인 상하이샬비지의 선원들이 세월호에 고박작업을 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7시간이면 될 것을...정부, 인양 의지 없었다

해수부 업체 선정 기술력 검증 부실·인양 방식 갈등 희생자 가족들 “이젠 진상 규명·기다림 곧 끝나길”

7시간이면 건져 올렸을 것을, 넉넉잡아 이틀이면 ‘반쪽’ 들어올렸을 세월호는 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수면 위로 떠올랐을까.

지난 22일 오전 10시 시험인양에 돌입한 순간부터, 같은 날 밤 8시50분 바다에서 선체가 일부 들어올려 졌다는 정부 발표, 그리고 23일 새벽 3시 세월호가 바다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의 인양 과정을 언론보도로 접한 국민 대다수가 품었던 궁금증이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는 선체 인양 시점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 나아가 국민 바람과 달리 늦어진 데 대해 “침몰 해역인 맹골수도의 거친 기상여건, 거대 선박을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기술적 문제들이 커

다란 변수로 작용했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다.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4·16가족협의회 선체인양분과장 정성욱씨는 이날 오전 언론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인양은 못 올리고, 안 올리고 둘 다라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정부 의지의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양 과정을 꼭 살펴보면, 정부가 선정한 인양업체 상하이샬비지는 처음부터 기술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체 기술력이 없었던 업체를 정부가 최저가격으로 데려와서 인양을 시작했던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밝혔다.

외국에서 선박 인양 경험이 없고 중국 해역에서만 침몰 선박 인양 경험이 있던 업체에 인양을 맡긴 자체가 조속한 인양 의지가 없었다는 그간의 지적을 되새긴 것이다.

정씨는 “정부가 지난 2015년 7월 인양 업체로 상하이 샬비지를 선정하고 8월 사전작업에 착수할 때 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의지는 있었던 것으로 봤다”면서 “그러나 해양수산부와 인양업체 간 빚어졌던 갈등, 기술적 문제 등이 많아 이제야 세월호가 떠오르게 됐다”고 언급했다.

경남 진해에서 팽목항을 찾은 최진기(38)씨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염원하는 맘에 직원들과 함께 왔다”면서 “막상 와보니 불과 하룻밤에 반쪽 들어올릴 배를 3년이나 끌었다는 생각이 들어와 나가고 답답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미수습자 가족 권오복(61)씨는 “지금까

지 안 올린 것도 아니고 못 올린 것도 아니다”고 했다.

권씨는 “인양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하룻밤 사이 반쪽 들어올릴 것을 이제야 건져 올리느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라도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내 다행이다”면서 “정부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조카와 동생을 찾아 어서빨리 돌아갈 생각밖에 없다”고 했다.

차가운 바닷속에 딸을 남겨둔 허다운양의 어머니 박은미(48)씨는 “세상 사람들은 정부와 업체가 세월호 인양을 일부러 늦췄다는 말이 있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이 보기엔 그렇지 않다”며 해수부와 업체를 감쌌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목포 신항까지 선체를 인양할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진도=김한영기자 young@

수습 본부 55개동·분향소 설치... 목포신항 세월호 맞을 준비 분주

인양된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신항도 세월호를 맞을 준비에 분주해지고 있다.

23일 목포신항 주변은 경비가 강화돼 일반인은 물론 취재기자의 출입도 통제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날 박홍률 목포시장과 지원대책본부 관계자 50여명은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신항 현지를 답사하고

시설물 공간배치 계획 등을 점검했다.

목포시와 목포신항만(주)에 따르면 세월호가 거치될 장소는 신항만 철제부두로 선체정리 구역 2만9700㎡(약 9000평)와 현장 수습본부 3000㎡(약 1000평) 등 총 3만㎡의 공간에 꾸러지게 된다.

선체정리 구역에는 인양된 선체를 비롯

해 유품과 폐기물 등이 수습되고 현장본부에는 5개반 10개팀 105명으로 구성된 세월호현장수습본부 사무실과 시신 미수습자 9명의 가족이 거처하게 될 컨테이너 55개동이 설치된다. 이들 시설물은 오는 31일까지 설치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또 인양된 세월호가 신항에 도착하면 육지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레일 작업도 함께 병행된다. 신항만 관계자는 세월호 신항 도착 이후 육지로 올리는 데만 3일정도 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목포시는 세월호가 신항에 거치되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추모객들이 찾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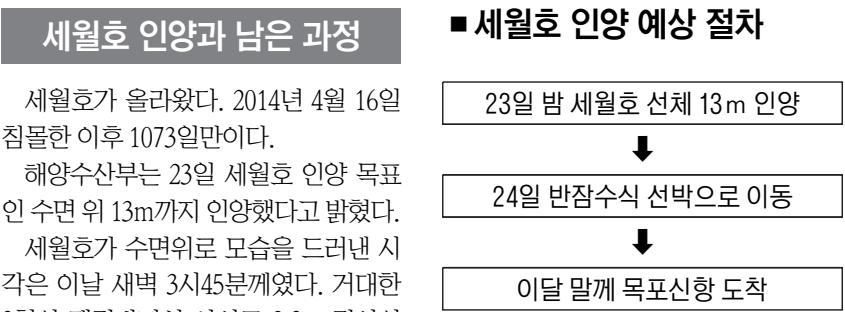
것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의료·교통 등 8개 팀으로 종합안내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추모객들을 위한 임시 주차장은 세월호가 거치될 철제부두 뒤편에 있는 석탄부두에 조성되고 분향소도 이곳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양된 세월호가 거치될 철제부두 주변에는 높이 3m의 철망이 둘러쳐 있고 선체 정리구역까지 거리가 400m에 달해 일반 추모객들이 세월호 선체를 보기 위해선 쌍안경 등 장비를 준비해야만 관측이 가능할 전망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와이어와 선체 부딪혀 한때 인양 중단

유실방지망 설치...반잠수식 선박에 실어 목포신항 이송



이에 따라 세월호와 바지선을 연결하는 1차 고박 작업과 세월호 선체의 자세를 재조정하기 위해 인양 작업을 잠시 중단했다.

인양 속도는 늦춰졌고 이날 오후 5시 8.5m까지 떠올랐다.

세월호 주변에는 그물망이 설치됐다. 선체 안에 있는 잔존물 등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세월호의 침몰·출입구·구멍 등에 유실방지망을 설치한데 이어 세월호 주변으로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의 철제펜스를 설치해 ‘겹고물망’으로 선체를 에워쌌다. 또 펜스 안을 40개 구역으로 나눠 해저를 수색하고 수중음파탐지기(소나)도 동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24일까지 세월호를 반잠수한 선박에 올린 뒤 목포신항으로 이동한다는 계획이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오는 4월 4~5일쯤 목포신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진도=김한영기자 young@

진도 주민 “인양 천만다행...끝까지 돕겠다”

23일 오전 세월호 선체가 거치될처럼 바다 위로 떠오르자 진도 주민들도 내일처럼 반겼다.

이날 인양 소식을 접한 진도 주민들은 “세월호 가족들을 생각하면 선체 인양이 한없이 늦었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세월호가 물으로 올라와야 한다”며 “세월호와 함께 9명의 미수습자도 가족 품에 안겨 3년의 기다림을 끝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공진(57) 전 진도군 수산단체연합회장은 “사고 당시 진도 어민들은 조업을 중단하고 모두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3년이 흐른 지금도 진도 어민들의 마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늦은 감은 있지만 선체 인양 후 한 점의 흠이 없도록 침몰 원인이 규명되길 바란다”면서 “세월호도 올라왔으니, 진도 어업 경제도 활기를 되찾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어민들 마음을 전했다.

최정란 진도군 홍보계장은 “떠오른

세월호를 보면서 진도군 공무원, 주민 전체가 한마음으로 기뻐했다”면서 “진도군은 자체적으로 7명의 공무원을 세월호 지원 전담 조직으로 운용하고 있다. 진도군 공무원들이 끝까지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 인접한 진도 동거차도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주민 조광원(61)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날 한 명이 라도 더 구했어야 했는데, 죄스런 맘에 지난 3년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선체가 바다 위로 오른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어서 빨리 9명의 미수습자들이 가족 품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식당이나 숙박업을 하는 상인들도 “하루면 반쪽 들어올릴 세월호 인양이 왜 이렇게 늦었나 궁금하다”면서도 “늦었지만 세월호가 바다 위로 솟은 모습을 보니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이나마 풀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61호

2017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위기업종(조선기자재) 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

조선업 밀집지역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위기업종(조선기자재) 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지역 기업·기관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조선업 밀집지역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전남, 전북지역에서 조선 관련 기술을 응용하여, 해당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선 기자재 사업다각화 분야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지원

〈참고. 위기업종 지원지역 관련 주력산업〉

지역	주력산업
전남	바이오식품, 금속소재기업, 에너지설비,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 타지역(경남, 부산, 울산)은 과제 선정 완료

2.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7년 신규지원 예산 : 총 14억원 (국비 10.2억원, 지방비 3.8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연 2~4억원 이내

○ 총 지원기간 : 19개월(연차협약)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7. 06~2017. 12(7개월)

* 2차년도 사업기간은 12개월 단위 협약체결 진행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3. 지원 방식 : 자유공모

4. 지원절차 및 일정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특허분석 및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17. 3.24	2017.4.12 2017.4.24	~5.11	~5.17	~5.31	~6월 말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단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접수 시, 온라인접수와 신청서류 제출을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5.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기자재업체(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불가)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과제지원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수출기업인 경우, 최대 가점 2점

6. 유의사항

○ 산업R&D 바우처 제도 적용

- 주관기업은 R&D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바우처 적용규모는 협약에 명시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공고문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필수)

7.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기간 : 2017. 4. 12(수) 09:00 ~ 2017. 4. 20(목)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중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90

8.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 4. 17(월) 09:00 ~ 4. 24(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9.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 등 세부규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9. 접수 및 문의처

□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문의전화	주 소
(재)전남지역 사업평가단	061-399-7526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재)전북지역 사업평가단	063-278-973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일시	장소
전남	2017. 3. 30(목) 14:00~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1층 회의실 (전남 영암군)
전북	2017. 3. 31(금) 14:00~	전북대학교 홀산건지하우스 5층 세미나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창포길 93번지)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044-203-4429)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 (02-6009-3762, 3764, 3772)

각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알림마당-사업공고' 공고문 참조

산업통상자원부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